

인민과 홍색 커피향을 담은 장춘 ‘도시의 이중주’



인민광장이 새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된 7월 21일, 길림성 최초의 ‘인민커피숍’이 인민광장에서 문을 열었다. “‘인민’이라는 두 글자는 언제나 각별히 친근합니다. 인민정부, 인민광장... ‘인민’이 들어간 곳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올해 68세인 리로인은 인민커피숍 개업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찾아왔다고 말했다.

개업 첫날부터 커피숍 앞에는 긴 줄이 이어졌다. 정주에서 아이와 함께 장춘으로 관광온 왕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민커피숍 소식을 접하고 특별히 방문했다고 한다. “커피잔에는 ‘인민커피숍’이라는 로고가 새겨져있고 포장에도 ‘인민’과 관련된 여러가지 글들이 적혀있었어요.력사적 소장 가치가 있는 문화창의제품도 판매한답니다. 그리고 가게에서는 교원자격증, 퇴역군인증을 제시하면 할인까지 해줄 수 있어요. 진짜로 ‘인민’을 위한 커피숍이죠.”

이런 요소들은 커피숍으로 하여금 더욱 친근한 느낌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커피숍 관계자는 현재 하루 평균 매출액이 6,000 원에 달한다며 이 모든 성과는 ‘인민’이라는 두 글자에 품은 시민들의 깊은 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한 ‘인민 도시’는 인민을 위한다는 근본 리념

아래 장춘인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지역 대표 커피 브랜드로 성장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도시 동쪽 끝에 자리한 ‘홍카페’에서는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80 주년을 기념하는 사랑송회가 열렸다. 여덟명의 학생이 한줄로 서서 〈영웅의 피로 물든 붉은 기발, 우리 마음은 영원히 해방을 향하여!〉라는 자작시를 읊 읽었게 읊었다. 벽면에는 〈중국공산당규약〉(中国共产党章程) 표지와 “조국을 사랑하자!”라는 구호가 서로 어우러져 빛났다.

가게 직원은 이는 이달 들어 두번째로 가장 주제 교양 행사라고 소개했다. ‘홍색문화 커피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홍카페는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혁신하고 있는데 가게 안의 진렬품부터 벽면의 구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젊은이들을 끌고 있었다. 대학생들은 인터넷에 올린 커피숍 관련 글을 보고 “애국이 이렇게 새롭고 유행을 따를 수 있구나!”라는 감탄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항일전쟁 시 한수, 당사(党史) 강좌 한차례, 홍색 테마 문화상품 한 점, 주제 사진 촬영 한컷으로 이어지는 이 몰입형 분위기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을 찾아 홍색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 주동기자

로신 주제 미술품 전시회 길림성박물관에서



7월 25일, 길림성박물관(동북항일련군기념관)과 북경로신박물관(북경신문화운동기념관)이 공동 주최한 ‘거장에게 경의를 — 북경로신박물관 소장 미술품전’이 길림성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 전시회는 로신 주제 미술품 100여점을 선별해 관람객들이 예술적 시각으로

로신의 문학세계에 다가가고 시대를 초월한 정신적 힘을 느끼게 했다.

20세기 중국문학의 거장인 로신은 날카로운 문체로 수많은 경전적 인물 형상을 창조해 민족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팔자수염도 이미 시대를 상징하는 문화 부호로 되었다. 이번 전시는 예술가들의 다차원적인 해석을 통해 ‘민족의 혼’ 로신의 문학 성취와 인격 매력을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전시는 ‘문학의 혼: 로신 소설 삽화’와 ‘정신의 화백: 화가의 눈에 비친 로신’ 등 두개 주제 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연년(赵延年), 정십발(程十发), 범증(范曾) 등 예술가들이 〈아

Q 정전〉, 〈축복〉 등 명작을 위해 창작한 원본 삽화(插画)를 집중 전시했다. 또한 장조화(蒋兆和), 오관중(吴冠中), 황영옥(黄永玉) 등 대가들이 유화, 수묵, 조각 등 형식으로 ‘사상의 등대’인 로신 형상을 조각해 그의 강인하고 심오한 정신세계를 보여주었다.

이번 전시회의 기획자는 “로신이 중국 미술의 현대화 과정에 끼친 영향은 거대하다. 신흥 목판화, 책장 디자인 등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실천은 오늘날까지도 예술 창작에 사상적 원천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시는 대사를 추모하는 차원을 넘어 현실을 직시하고 창의를 추구하는 예술 정신을 계승하도록 관람객들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번 전시는 10월 8일까지 지속되는데 여름방학을 맞아 전시장에는 많은 어린이 관람객들도 모여들었다. 〈로신상〉(장조화 작) 등 명작을 관람하며 사진촬영을 하는 모습들이 이어지면서 전시회는 문화적 핫플레이스로 되었다.

/ 주동기자

연변주 종업원 과외가수 경연대회 개막

8월 2일 저녁, 연변주총공회에서 주최하고 도문시총공회에서 주관한 2025년 연변주 종업원 과외가수 경연대회가 두만강광장에서 펼쳐졌다.

이번 경연대회는 중화전국총공회 창립 100돐,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80돐을 경축하고 로동정신, 모범종업원정신, 장인정신을 더욱 고양하며 광범한 종업원들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고 종업원들의 적극적인 정신품모를 보여주며 종업원 대외의 응집력과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데 취지를 두었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 경연대회는 8월 23일까지 지속된다. 경연대회 참가 접수가 시작된 후 각급 공회 및 관련 기업사업단위들의 200여명 종업원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대회조직위원회는 100여개의 예선 프로그램에서 앞선들이 42개의 진출 작품을 선별하였다. 이 작품들은 독창,



합창 두가지 형식으로 세차례의 진출 경연과 한차례의 결승경연을 통해 최종 등수를 매긴다.

경연 과정에서 출전 선수들은 모두 공연에 몰두하였다. 그들은 우렁찬 노래, 깊은 정감과 자신감 넘치는 풍

모로 적극적으로 향상하고 용감히 분투하는 새시대 종업원들의 정신면모를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무대 아래에서는 3,000여명의 관객들이 그들의 열정에 깊이 감화되어 열렬한 박수갈채와 환호성을 보내며 현장 분위

기가 매우 뜨거웠다.

이번 경연대회는 종업원들의 예술품모를 보여주는 성대한 모임일 뿐만 아니라 인심을 모아 분투의 의욕을 고무하는 정신적 세레이기도 하다. 이번 경연을 통해 각급 공회는 종업원들과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하고 종업원들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하는 동시에 로동정신, 모범종업원정신, 장인정신이 더욱 폭넓게 전파되고 고양되게 할 것이다.

전 주 종업원 과외가수 경연대회 기간 도문시는 계속해서 두만강광장에서 특색음식, 가족유희, 음악 축제 등 일련의 활동을 기획할 예정으로 ‘문화+’ 모델을 통해 다원적인 업태를 활성화하고 문화·관광·산업 융합의 생동한 경로를 보여주며 문화관광 융합 발전과 도시 품질 제고에 힘을 보태 국경 소도시의 고품질 발전에 새 동력을 불어넣게 된다.

/ 길림일보

영화 《731》 9월 18일 개봉... 어떤 영화일까

— 10년의 끈질긴 노력과 다듬질로 역사적 진실 재현



일본침략군 731 부대 만행을 조명한 영화 《731》이 오는 9월 18일 전국적으로 동시 개봉된다. 이 영화는

길림성, 흥룡강성, 산둥성, 청도시 등지의 당위 선전부 및 합빈시일본침략군 731 부대죄증전시관이 공동 제작에 참여했으며 장영(长影) 그룹, 보리영화 등 다수 영화회사가 공동 출품하였다.

영화는 1933년부터 일본침략군 731 부대가 중국 동북지역에서 자행한 세균 실험을 배경으로 한 보통인물의 운명적 굴절을 통해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고 암흑기에 저한 중국인민의 생사를 초월한 투쟁을 생동하게 보여준다. 제작진은 대본 창작부터 촬영 완성까지 10년간의 시간을 들였으며 역사에 묻힌 이 어두운 진실을 재현하기 위해 국내외를 누비며 자료를 수집하고 100만자가 넘는 자료를 검토하면서 ‘모든 디테일은 사료에 근거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감독 조림산은 제 20회 중국영화표상 시상식에서 “우리는 그들의

폭행을 재현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영상의 힘으로 전쟁 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반성을 촉구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영화 촬영 현장에서 제작진은 고고학적 정밀도로 역사적 장면을 재현했다. 사료에 근거해 사방루(四方楼) 전경을 재건축하고 ‘특별이송(特别移送)’을 실시했던 열차도 복원했으며 배우들의 의상조차 반복적으로 고증했다. 주연배우 강무(姜武)는 촬영 당시 ‘역사 현장’에 직면할 때마다 감정이 극도로 억눌렸다고 고백하며 “모든 장면이 령혼에 대한 고통이었지만 관객들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것 또한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영화는 한 이야기에서 여러 단서가 동시에 전개되는 방식으로 일제 내부의 권력 암투와 인성의 외곡을 폭로한 동시에 실패 대상자들의 은밀

한 저항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절대적 권력 속에 갇힌 마비된 생명들의 절망도 보여준다. 조림산 감독은 “《731》은 고통을 상품화한 영화가 아니라 인성의 악을 비추는 거울”이라며 “전쟁이 어떻게 인간성을 잃고 러뜨리는지, 절망의 심연 속에서 인간성의 빛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예술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창작 의도를 설명했다.

특별한 역사적 사명을 지닌 작품으로서 총기획 장엄(庄严)은 “영상의 힘을 빌려 역사적 진실이 망각되지 않고 평화의 신념이 대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포부를 전했다.

관객들이 영화관에서 이 무거운 역사를 마주할 때, 평화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고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신념이 마음속에 뿌리내려 대대로 계승될 것이다.

/ 길림일보

영화 《남경사진관》

개봉 8일 만에 흥행수입 10억원 돌파

영화 《남경사진관》이 8월 1일까지 개봉 8일 만에 흥행수입 10억원을 돌파, 2025년 설 연휴 이후 첫 10억원 박스오피스(票房) 달성 작품으로 떠오르면서 현재 2025년 흥행 순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영화 《남경사진관》은 남경대학살 당시 일본군 만행을 증명하는 실제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군 범죄 증거 사진’의 발굴 과정과 세상에 알려지기까지의 고난을 그리며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이 일본군에 맞서 사진 필름을 ‘무기’로 결연히 저항하는 모습을 담아냈다.

《남경사진관》은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시점에 개봉되어 관객들에게 더 큰 울림을 주고 있다.

/ 중국국제방송



연변박물관, 여름철 개관시간 연장

연변박물관이 7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방학 기간 관람객 편의를 위해 개관시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여름휴가철 증가한 관람 수요에 대응하고 교육·문화 전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매주 월요일도 정상 개관한다.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20시까지(입장 마감 시간은 저녁 19시 30분)이다. 관람객은 반드시 사전 예약(연변박물관 공식계정)을 한 후

큐알코드 혹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남쪽 정문에서 입장에 복문으로 퇴장해야 한다. 박물관에는 흡연과 라이터 반입이 전면 금지되며 반려동물 동반 및 고성 방송 등 소란 행위 역시 제한된다. 단체 관람 시 인솔자는 입장 즉시 가이드 기발을 수령하고 화성기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모든 관람객은 박물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문의전화: 0433-431-1030

/ 주동기자